

## 라헤쉬 램 | Rahesh Ram

### 작가 프로필 | Profile

라헤쉬 램 교수는 그리니치 대학교의 부교수이며, 석사과정의 건축 디자인 실무과정 코디네이터이며 1 학년 테크놀로지 코디네이터이다. 대학원과 학부에서 디자인을 지도하고 있으며, 건축에서의 내러티브와 이의 디자인 언어 적용에 관한 연구를 하고 있다. 라헤시는 허드슨 건축사사무소와 이미지네이션 스튜디오, 영국 건설환경위원회(CABE)에서 실무를 쌓았으며, 2001 년 본인의 사무소인 Naau 를 설립하였다. 현재 그의 교수법은 그의 실무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

Rahesh is a Senior Lecturer the University of Greenwich, MArch Architecture Design Realisation Co-ordinator and BA (Hons) Architecture and Landscape Architecture Year One Technology Co-ordinator. He runs both Masters and Undergraduate Design Units. He has had a preoccupation with narrative in architecture and architecture as language. Rahesh was an Associate at Hudson Architects and worked for Imagination Ltd, the Commission for the Built Environment (CABE) before setting up Naau.Ltd, a multidisciplinary office in 2001. Teaching has informed his practice.

## 사라 알란 | Sarah Allan

### 작가 프로필 | Profile

사라는 건축가, 도시계획가이다. 지난 20 여년간 주거와 문화시설관련 프로젝트 매니저로 실무를 하고 있으며, 개인 주택과 예술 프로젝트에서 마스터 플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스케일의 작품을 다루고 있다. 그녀는 클라이언트와 프로젝트의 모든 과정에서 창의적인 생각과 상호협력 디자인 접근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그녀는 '로만 로드 신탁'과 '자선단체를 위한 커뮤니티 투자기금'의 디렉터이며 그 밖에 다양한 자원봉사기관에서 사람들을 돕고 있다.

Sarah is an architect, urban designer and project manager working across the public and private sector for 20 years delivering residential and cultural projects, at a range of scales from masterplans to individual homes and art projects. She brings creative thinking and a collaborative approach to the client team and to projects at all stages including managing project vision and budget, procuring and managing design and construction teams and engaging communities and stakeholders during the planning process. She holds several voluntary roles, including Director of Roman Road Trust and Independent Housing Advisor for the Charities Aid Foundation Community Investment Fund.

## 아라비안 나이트와 감각 (지니를 생각하라) | The sensorium of the Arabian Nights (Evoking the Genie)

### 작품개요 | Brief

감각은 강한 감정상태에 따라 결정되며, 특히 특정 공간과 장소는 이러한 감각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문학은 시간 여행과 지리적 압축을 이용하여 이러한 장소의 전달자가 될 수 있으며, 서사적 특이성을 이용하여 이야기 흐름의 전개를 맥락화할 수 있다. 따라서 문학은 거주 가능한 감각이 될 수 있다. 아라비안 나이트는 익숙하거나 아직은 익숙하지 않은, 실재하거나 실재하지 않는 풍경, 지역, 장소와 공간을 담은 심지어 수세기를 거친 하나의 프로젝트이다. 이 이야기들은 고대 아라비아 세계와 그 세계의 오래된 냄새, 시각적 증거들, 소리들 속으로 이국적인 것들에 익숙하지 않은 독자들을 마법처럼 이동시킨다. 이 책에 등장하는 마법적 존재들과 인물들은 현실세계에서부터 떨어져 나온 보다 감각적인 것들을 만들어낸다. 현실세계를 지배하는 과학은 뒤틀리고 변형된다. 실재와 마법의 관계는 모호해진다. 마법은 그 결과 현실 세계의 평범한 사건이 된다. 이 작품은 아라비안 나이트의 마법적 세계를 연구하는 시발점이다. 이는 책 속의 책의 구성형태를 지닌 아라비안 나이트의 무한한 순환을 기록하는 제도법이다. 모든 지도들이 그러하듯, 이 작품은 관객들을 아라비안 나이트의 ‘감각’으로 이끄는 내비게이션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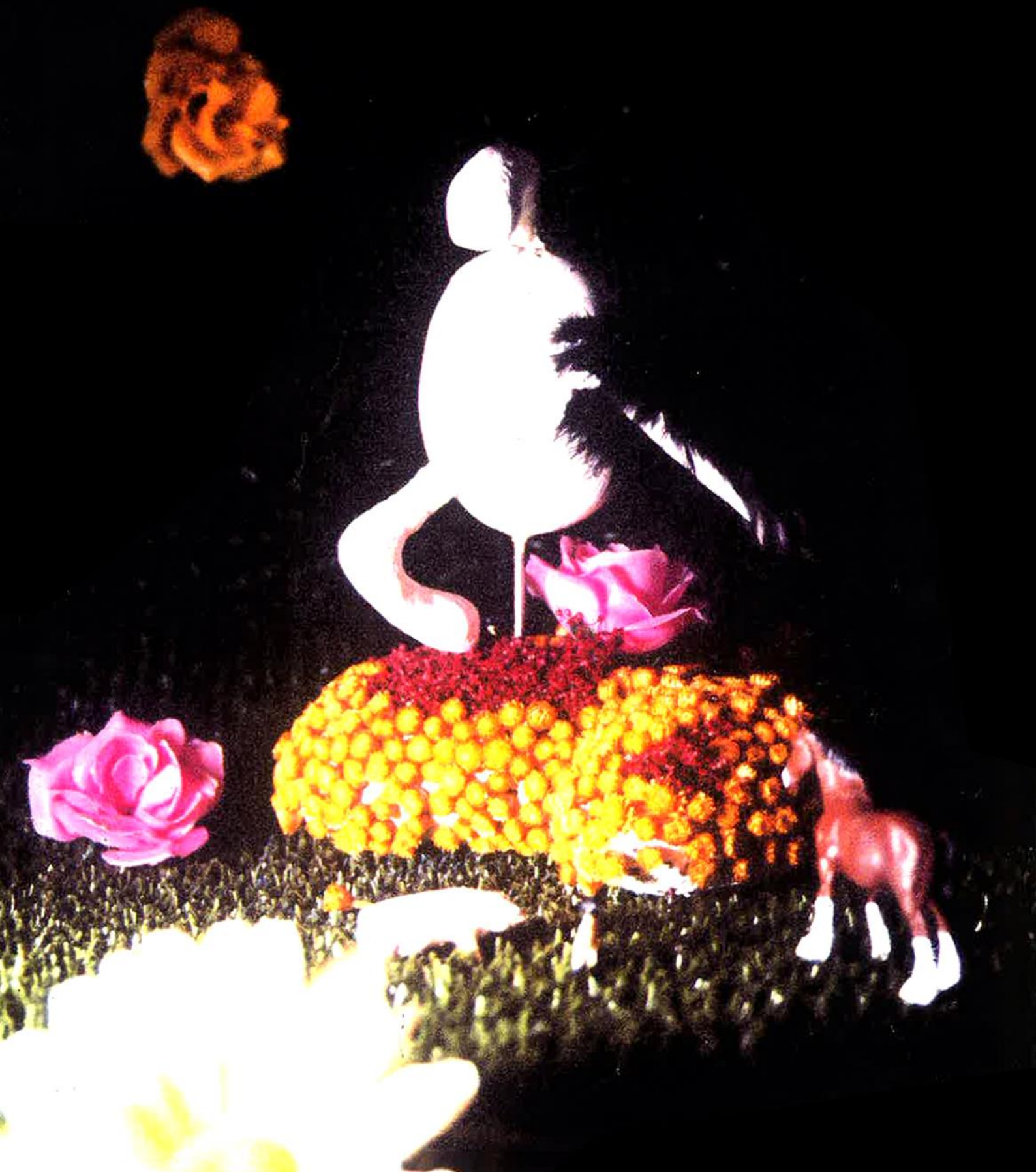
The notion of a sensorium evokes the visceral quality that a particular space or place can arouse. Through time travel and the compression of geographies, literature can become a conduit to such places. It can contextualise a progressing storyline through descriptive specificity. In that way, literature can be a habitable sensorium. The book, the Arabian Nights, projects one through time (centuries even) and into landscapes, realms, places, and spaces that are familiar yet unfamiliar; real and unreal. The stories introduce magical shifts into the ancient Arabian world; a world of old smells, visual clues, and sounds that are exotic to the unfamiliar reader. The magical occurrences and characters in the book produce further sensory evocations that are a shift from the real world. The science that governs the real is inverted and played with.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real and the magical is blurred. It is as though the magical is an ordinary occurrence in a real world. The work presented in the exhibition is a starting point of an investigation into the magical world of the Arabian Nights. It is a cartography of the infinite cycles and nested stories that structure the book. Like all maps, it is edited information providing the reader with a navigation tool that can lead them to the sensorium of the Arabian Nights.

### 작품설치 | Installation

작가는 일련의 내러티브 베이스의 건축드로잉을 전시할 예정이다.

The authors will exhibit series of narrative based architectural drawings.

A Beauty Pageant in the Gardens of Paradise 2017, Photograph of Bricolage, Rahesh Ram





Arabian Nights #1 (Acrylic paint on plywood) 2017, Sarah Allan